

# 중국, 수돗물 페놀 오염 “불안”

장쑤, 리터당 0.001-0.132 $\mu$ g으로 기준치 하회 ... 한국선박 유출 의심

중국 창장(長江) 하류에서 페놀(Phenol) 오염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장쑤성 전장시는 관내 수돗물이 페놀에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2월3일부터 수돗물 맛이 이상하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수돗물에 페놀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월7일 발표했다.

페놀 농도는 리터당 0.001-0.132 $\mu$ g으로 기준치인 3.5 $\mu$ g을 넘어서지는 않았으나 당국은 4시간에 1번씩 하던 수질검사를 시간마다 하는 등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류 쪽의 난퉁(Nantong)과 상하이(Shanghai) 등에서는 주민들이 생수를 사재기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 남부에서 벌어진 카드뮴(Cadmium) 오염에 따른 식수대란 직후 발생한 것으로 수돗물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전장시는 한국 선박이 오염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장시는 “전장에 정박한 한국 선박의 배출 파이프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며 “환경, 출입국, 해사 당국이 긴급히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상하이 총영사관 관계자는 “아직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한국 선박 측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것이 없어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며 “사건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08>